

[크리스 해리슨 목사 내적치유 세미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2)

내적치유의 첫부분 - 깨어진 영

1997/ 페이지수: 4

계속되는 슬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까?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슬픔은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전에 이런 상한 심령을 갖고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난 뒤 조부모님에게 보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퇴역군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줄 모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옷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장난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져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는 말 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저를 칭찬해 주거나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지 1년이 지나자 부모님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자주 술에 취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님들이 싸우는 말을 들을 때면 언제든지 불안해합니다. 부모님들이 말다툼을 할 때마다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술을 드셔서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그만좀 싸우세요. 두분이 하시는 일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줄 아세요?』 그랬더니 부모님들께서는 『너는 가서 잠이나 자.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밤부터 저는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베개를 뒤집어 쓰고 자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삶의 문제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발해서 저는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을 때려주곤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나오는 『패려한 혀』는 히브리어로 『거칠고 악하고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이러한 혀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혀를 가진 분들이 권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은 갑자기 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상합니다. 부모님들이나 형, 언니, 오빠, 선생님, 상관, 지도자, 남편 등이 이러한 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문제가정의 「상한심령」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세 번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2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제가정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짐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저는 문제가정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가정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사랑은 돈이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족으로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부모가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만져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아이들을 제자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온유하게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부드럽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화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제자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말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부모도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별만 주려합니다. 『이것 하지마! 저것 하지마! 이런 것은 잘못된거야!』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제자화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심한 상처를 줄 뿐입니다.

성경은 아비들에게 자녀와 상담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대화가 없을 때

두 번째 예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가정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영국에 간호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고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입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수다스러웠습니다. 한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인이고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이 두 자매가 우연히 휴가 기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자매가 중국인 자매를 자기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영국인 자매의 집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인 자매에게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인 자매는 『산도 아름다웠고 나무도 굉장히 컸고 공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영국인 가족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 영국인 가족은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무 말없이 혼자 식사한 후 『안녕』하고 출근을 한 후 밤 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미 식사를 한 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합니다. 그 후 TV를 보다 『잘 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어머니는 아주 착하고 조용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연약함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똑같은 방에 앉아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은 상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줄 모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과 좌절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삼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세 번째 예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슬픔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예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제 경우처럼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원함

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외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어릴적에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됩니다. 그것이 신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혼자 외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정에서 자랐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 심령은 밑 빠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변화되기도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정 속에서입니다. 이런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성경을 봐도 완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야 해!』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누가 데리고 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정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세가지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두 번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이 세가지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온 누리 신문**